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없앤다

금감원, 불합리 영업 관행 개선안 발표... DCDS·리볼빙 등 유료상품 수수료 고지해야

내년부터 카드 포인트를 사용 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된다. 또 카드는 채무면제·유예(DCDS) 상품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상품 등 유료상품을 판매할 때 이용수수료 등을 알려야 하고 장기간의 고객 정보 수집도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8개 카드사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카드 포인트의 사용비율을 제한하는 관행을 없애도록 했다.

지난해 금감원 조사 결과 8개 전업사 중 5개사는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10~50%로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는 5개사 기준으로 제한건수는 전체 포인트 결제 건(1억 3천만건)의 68.3%인 8918만 건에 달했다. 금액으로 보면 전체 포인트 결제금액 7566억원의 58.3%인 4411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내년 이후 출시하는 신규 상품부터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금지하는 내용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 발급된 카드에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당국은 카드사들이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하는 방향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카드 포인트 사용에 대한 소비자 안내 및 고지의무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포인트 사용방법, 포인트 사용 가능 가맹점, 포인트 사용 제한 내용 등을 상품안내장에 자세히 게재해야 한다.



영상 콘텐츠의 새로운 미래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제5회 KOFIC 글로벌 포럼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VR 시네마를 감상하고 있다.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국내외 영화 및 영상미디어 전문가들이 모여 대한민국 영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리이다.

비대면 유료상품은 이용수수료 등 중요 정보를 제대로 알리는 데 주안점을 뒀다.

실태 점검 결과 채무면제·유예(DCDS)상품을 취급하는 7개 카드사 중 홈페이지에서 수수료 조화가 가능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유료상품 통합 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에 관련 기능을 신설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해지에 따른 결제대금 증가 등의 영향은 팝업창 등을 통해 안내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채무면제·유예(DCDS)상품, 신용정보보호상품, 휴대문 문자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상품 등이다.

카드 발급을 중단한 소비자에 대한 정보 수집 관행도 바꾼다. 3분기부터 카드는 행정자치부의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을 고려해 카드 발급 신청절차를 중단한 경우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5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이밖에 청구금액이 소액일 때 소비자의 동의 없이 수령방법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전자방식으로 전환하는 관행과 은행별로 카드대금 결제처리 마감시간이 달라 거래은행에 따라 소비자의 연체 발생여부가 결정하는 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다. /안진수 기자

고개 숙인 유일호 부총리

"경제성장률 전망 매년 틀려 국민께 드릴 말씀 없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결과적으로 매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틀린 것에 대해 국민들께 드릴 말씀이 없는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합동브리핑'에서 "매년 매우 신중하게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지만 새로운 환경이 발생함에 따라 실제 성장률을 맞히는 데는 다소 어

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장 올해만 해도 저유가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지 불확실하고 브렉시트(영국 EU 탈퇴) 과정에서도 어떤 영향이 미칠지 알 수 없다"며 "연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정적인 하방 요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말에 발표한 성장률 전망이 실제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안진수 기자

"금등세 유가 당분간 완만히 오를 것"

LG경제연구, 6개월 새 104% ↑ ... 3분기 46·4분기 48달러 예상

유가의 금등세가 멈추고 당분간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28일 '석유 공급과잉 줄면서 공급 차질에 따른 리스크 상승' 보고서를 통해 "산유국에서 생산능력을 회복할 것"이라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바이유 기준으로 1월21일 배럴 당 22.8달러에서 현재 46.5달러로 상승했다. 이는 지난 6개월 동안 103.9% 오른 것으로 10년래 가장 빠른 상승세다.

유가는 2015년 51달러를 기록한 이후 올해 1분기 31달러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주요산유국에서 불거진 석유 공급 차질 등으로 올해 2분기 평균 43달러까지 상승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니제르 델타에서 테러로 송유관이 훼손돼 1989년 이후 최저 산유량을 기록했다.

베네수엘라는 가뭄으로 발전량이 줄어서, 캐나다에서는 앨버타 지역의 대형 화재로 석유 생산활동이 중단됐다.

이로인해 5월 산유량이 연초와 비교해 161만b/d(배럴/데이) 줄었다. 1월에 295만b/d수준의 초과공급도 5월 67만b/d로 줄었다.

하지만 폭발적인 상승세가 멈출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경우 7월 중 석유생산이 회복될 전망이다.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으로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투자 및 소비심리 위축을 유발해 단기적인 유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브렉시트로 인해 안전자산으로 투자가 몰려 달러강세를 유발하고 이 경우 석유 수입국들의 수입 부담이 높아져 수요 위축도 우려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올해 3분기 평균 46달러를 기록한 뒤 4분기 48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3분기 46달러, 4분기 48달러로 예상했다.

완만한 유가 상승은 세계경제에 긍정 요인이 될 전망이다. /안진수 기자

1분기 전자지급서비스 하루 이용액 3천억 돌파

결제대행서비스 영향 전분기 대비 8.6% 늘어... 이용건수는 10.0% 감소

올해 1분기 전자지급서비스 일평균 이용금액이 3000억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4분기중 전자지급서비스 제공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전자지급서비스의 일평균 이용금액은 전분기 대비 8.6% 늘어난 300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07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다만 일평균 이용건수는 1742만건으로 전분기 대비 10.0% 감소했다. 전자지급서비스는 전자금융업자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지급결제 서비스로 업종에 따라 선불전자지급, 직불전자지급, 전자지급 결제대행(PG),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전자고지결제, 전자화폐 등으로 구분된다.

1분기 일평균 이용금액이 증가한 것은 신용카드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소비자가 늘면서, PG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금액 규모가 커진 영향이다.

PG서비스는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쇼핑물 등을 대신해 카드승인정보 수신, 대금회수 등의 과정을 대행하는 서비스다.

PG서비스의 일평균 이용금액은 216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9.3% 증가했다. 전체 금액에서 PG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72.2%로 가장 컸다. 일평균 이용건수도 399만건으로 전분기 대비 5.7% 늘었다.

에스크로 서비스의 일평균 이용금액은 전분기 대비 6.7% 증가한 538억원,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9%로 PG서비스의 뒤를 이었다. 이용건수 역시 4.3% 늘어난 104만건을 기록했다.

교통카드 중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평균 이용금액은 23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7% 늘었지만 이용 건수는 1235만건으로 15.1% 줄었다.

스마트폰 등을 통한 인증절차를 거쳐 구매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결제대금을 이체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일평균 이용금액은 전분기 대비 26.2% 감소한 2429만원이었다. 이용건수도 458건으로 47.1% 줄었다.

아파트 관리비 납부에 사용되는 전자고지결제 서비스 이용실적은 일평균 6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9.3% 늘었다. 이용 건수는 전분기와 비교해 3.6% 줄어든 3만건으로 집계됐다.

주로 대중교통요금 지불에 사용되는 전자화폐 일평균 이용금액은 1878만원, 이용건수는 1만793건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13.2%, 15.0% 줄었다. /안진수 기자

최양희 미래부 장관 "이통 기본료 폐지 찬성 안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8일 이통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문에 "지난 회기 때도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그때도 그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장관은 '기본료 폐지가 어렵다면

인하라도 검토해야 한다'는 고 의원의 질문에 "가계 통신비 부담 축소가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질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 결과를 넘기면 미래부 심사에)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안진수 기자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중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